

터키, 정정 불안으로 경제불안 심화

1. 최근 터키의 정정 불안

○ 연립정권의 구심점인 **에제빗 수상의 건강**이 문제시된 5월부터 정정이 불안

<최악의 시나리오>

에제빗 수상 퇴진 → 연립정권 분열 → 조기총선 → 현 여당 전멸
→ 개혁정책 중단 → 경제회복에 타격

* 득표의 10% 이상을 획득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제도 때문에,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에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%를 밑돈 현 여당들은 의회에 진출 불가능

○ 이번 임기가 수상 역임 4번째인 에제빗 수상에 대한 **퇴진 요구도** 큼

- 일부 재계와 군부도 고령과 신병을 감안하여 에제빗 수상이 퇴임하고 연립정권을 존속시켜 불확실성을 제거,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

- 77세의 에제빗 수상은 여러 가지 신병으로 인해 제대로 집무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수상 직의 이양을 거부

○ 에제빗 퇴임시 후임 수상으로는 현 외무부장관 등이 거론됨

2. 금융시장 불안 심화

○ 정정 불안이 IMF의 163억 달러 차관 지원으로 회복기미를 보여온 경제에 찬물

- 금융시장이 크게 악화하여,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에 대한 루머조차 일시 유포

- 금리(재정증권) : 5월 중순 55% → 6월 말 71% (16% 포인트 상승)
- 주가지수 : 4월 말 11,441.50 → 7월 3일 9008.37 (21% 하락)
- 환율(리라/달러) : 4월 말 1,338,308 → 7월 3일 1,642,267 (리라 가치 19% 하락)

○ 정부가 주요 은행을 접수한 것도 금융시장 불안에 일부 영향을 끼침

- 주요 재벌인 주쿠로바 그룹에 속한 Pamuk Bank(터키 제 7위)는 BIS 비율 8% 충족 불능 때문에 저축예금보험기금으로 넘겨 매각 대상에 넣음
- Yapi Kredi Bank(제4위)는 Pamuk Bank와의 상호출자 때문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정부 지명 인사가 이사로 취임

○ 한편 금융감독청장은 Pamuk Bank의 처리로써 은행 자본보충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선언, 은행계의 불안을 불식

- 7월 3일, Fitch는 터키의 신용등급을 B로 유지

○ 7월 4일 금융시장은 부분적으로 회복

	<u>7/3 종가</u>	<u>7/4 종가</u>
- 주가지수 :	9008.37	9,060
- 환율(리라/달러) :	1,642,267	1,626,000

터키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

- 경제성장('02.1/4): GNP +0.7%('01: - 9.4%), GDP +2.3%
- 재정수지(상반기): 일반회계 7,544조 리라 흑자
이자지급 포함시 15,002조 리라 적자(U\$92.3억)
- 외채(3월말): 1,175억 달러(단기 12.3%) (전년말: 1,200억 달러)
- 외환보유액(6/14): 222.8억 달러(수입 6개월분)
- 해외관광객 도착(1~5월): 355만명(+3.59%)